

사고 악순환에도...펜션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부실

명칭만 펜션, 전남 3417곳 농어촌민박업 등록...단독주택으로 분류 안전요원·구명장비 배치 의무 없어 자녀 둔 부모들 사고 위험 '불안'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이 즐겨찾는 광주-전남 펜션 숙박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욕장이나 대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구명 장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현행법상 독채나 객실 내 개별 수영장을 갖춘 펜션은 예외라는 점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관광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81곳이지만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3417곳에 달한다.

대부분 펜션의 경우 명칭만 '펜션'일 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관광펜션업과 달리 소화기를 갖추는 등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민이 소유 혹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자는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이 의무인 반면 농어촌민박은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만 비치하면 된다.

펜션 내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 등의 기구를 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하지만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소규모 수영장은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공영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엄격한 안전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펜션 내 소규모 수영장의 경우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간주돼 안전 관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펜션 물놀이 시설엔 별도의 안전요원이나 구명조끼가 없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문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자녀 둔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풀빌라 펜션의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전남지역 풀빌라 펜션을 이용하던 중 수영장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깨진 타일 파편에 아이 얼굴과 발 등에 상처가 났지만, 펜션에는 치질 연고 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17일에는 담양군 한 펜션에서 3세 아이가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가 펜션 내 수영장에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다행히 119 안내로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

분에 아이는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다.

지난해 7월에 여수 한 대형펜션 내 수영장에서는 8세 여아가 물놀이를 하다 잠수한 상태로 배수구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담양의 한 풀빌라펜션의 객실 수영장에서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이 튜브를 타고 있던 A(5)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전문가들은 풀카페, 키즈풀, 풀빌라 등 물놀이 시설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음식점, 장소대여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각각 다른 업종으로 등록돼 관리주체도 기준도 제각각인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같은 수영장인데도 전혀 다른 안전·위생기준이 적용되지만 소비자가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가족끼리 방문하는 숙박시설 내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한다든가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역시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 2세 유아가 익사사고를 당했지만 해당 업체는 공간 대여업으로 신고가 돼 있어 아무런 안전 관리 의무가 없었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물놀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빗속 내 모습 드리우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린 14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화제의 판결

구례군 수해보조금 유용, 제보자는 누구?

1심 "고발자 인정, 포상금 줘야"...2심 "고발자로 볼 수 없어"

구례군이 국고보조금 불법유용한 것과 관련,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고발자로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고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나자 폐기물 처리를 위해 146억 19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7월 1일 '구례군이 보조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같은 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언론 기사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1월 국고보조금 유용을 확인하고 구례군으로부터 76억 6600여만원을 환수

조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5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씨 제보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조사였고, 포상금 지급규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A씨에게 지급될 고발 포상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했고 그 전에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없으므로 A씨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환경미화원인 B씨의 신분보호 등을 이유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뿐 B씨 등이 자료를 직접 수집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5일 전 B씨가 정부사이트에 신고를 접수한 점 등을 보면 고발자는 A씨가 아닌 다른 B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 제보가 실질적으로 구례군 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에서 불법 홀덤도박판 20억 챙긴 일당 12명 적발

조직적으로 불법 홀덤판을 운영하며 20억원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일당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한 홀덤바에서 게임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에게 최소 15만원에서 6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칩을 충전해 게임에 참여한 뒤 승자가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도박장 운영자는 승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5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주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단골 손님만 입장시켰으며 각자 감시조, 종업원 관리, 고객유치와 정산 등 업무 분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하면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거나 출입문을 잠그고 정산표 등 증거자료를 감춰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박 참가자 300여 명 가운데 5차례 이상 상습 도박한 61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수능 앞둔 여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여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